

◎ 연중 제 4주일강론

하느님 마음에 드는 가난

오늘 복음에서 참된 행복의 가장 첫 번째 말씀으로‘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면‘마음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참된 가난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선 교회의 가르침을 종합적으로 말하면, ① 일반적인 가난은 극복해야할 과제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가톨릭 교리서 2448~9항 참조)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궁핍은 불행한 것이며 이는 공동체가 함께 노력해서 극복하고 풍요로워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누가 가난하다면 노력해서 가난을 극복하도록 해야 하고 이것은 주님 뜻에 맞는 것이며, 또한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또한 주님 뜻에 맞는 것입니다. 더욱 더중 요한 것은 함께 노력해서 우리가 모두 넉넉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서 일반적인 가난 외에 ② 스스로 가난을 택하는‘복음적 가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스스로는 넉넉하게 살 수 있지만,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하여 스스로 가난하게 살며 이웃과 공동체에 봉사하는 것으로 수도자나 성직자, 또는 특별하게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복음적 가난을 실천한 성인으로 성 프란치스코나 마더 테레사와 같은 분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말하는 가난이 이‘복음적 가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적 가난의 본질적 의미는‘마음으로 즉 영신적으로 가난한 것’을 말하는 데, 이‘마음의 가난’의 중요한 핵심은‘하느님을 위하여 가로막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 끊어버리는 것’을 뜻합니다.‘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소유한 부(富)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사랑과 그분의 손길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나 가족들에 대한 염려, 직업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미래생활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부자’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끼아라 루빅의 해석).

이제 힘차게 한해를 시작하고 있고, 곧 명절인 설도 다가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이있지만, 하느님의 관점에서 꼭 필요한 것만 취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일은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그 전날 밤부터 시작하여 기도를 하고, 아침기도를 하며,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주님께서 가장 먼저하기를 원하는 일부터 하기를 바라고, 그 순서대로 일을 하곤 합니다.

제가 필요로 하는 일은 항상 뒤로 밀리기 마련이고, 어떤 경우에는 며칠씩 밀려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보고 싶어 하는 드라마나 영화가 있을 때, 매번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다른 일이 생길 때, 그것을 하다보면 거의 한 달 이상 그 드라마나 영화를 못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더 평화롭고, 더 충만하게 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의 것으로는 가난해졌지만, 하느님의 것으로 풍요로워졌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주에는 나는 복음적 의미에서 어떻게 더 가난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더 하느님 뜻 안에서 풍요로워질 수 있는지 생각해보도록 합시다.

◎공소일반공지◎

▶고해성사 : 미사 10분전과 미사 직후
고해소앞에서 대기바랍니다

▶성가대원 수시모집 : 문의는 성가대장에게

▶사목회의 : 매월 마지막 주일

▶바느질기도회 : 매월 격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울뜨레아 : 매월 첫주일

삶의 종점에서

살 만큼 살다가 삶의 종점에 다다랐을 때 내게 남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원천적으로 내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때 맡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물질이든 명예든 본질적으로 내 차지일수 없다. 내가 이곳에 잠시 머무는 동안 그림자처럼 따르는 부수적인 것들이다.

진정으로 내 것이 있다면 내가 이곳을 떠난 뒤에도 전과 다름없이 이곳에 남아 있는 것들이어야 한다. 그러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내가 평소 타인에게 나눈 친절과 따뜻한 마음씨로 쌓아 올린 덕행만이 시간과 장소의 벽을 넘어 오래도록 나를 이룰 것이다.

따라서 타인에 베푼 것만이 진정으로 내 것이 될 수 있다. 옛말에 "아무것도 가져 가지 못하고 자신이 지은 업만 따를 뿐이다."라고 한뜻이 여기에 있다.

간디는 일찍이 이와 같이 말했다. "이 세상은 우리들의 필요를 위해서는 풍요롭지만 탐욕을 위해서는 궁핍한 곳이다."

나누는 일을 이 다음으로 미루지 말라. 이 다음은 기약할 수 없는 시간이다.

마음으로 바치는 기도

고요한 한밤중에 주님앞에서
예언자 우리에게 권고한대로
성부와 성자성령 삼위일체께
정성된 찬미찬송 드리나이다

지극히 거룩하신 우리하느님
유일한 본성본체를 지니셨기에
삼위로 일체심을 흠송하오며
언제나 끊임없이 찬미하리다

밤이면 옛두려움 되살아나네
진멸의 하늘천사 에집트땅찾아
예리한 죽음의칼 두손에잡고
에집트의 만이들을 모두죽였네

의인은 그밤에도 구원됐다네
문설주 양의피로 칠하였더니
천사가 발길돌려 지나가시어
간택된 주님백성 살려주셨네

우리는 하느님의 간택된백성
예수의 붉은피로 구원됐으니
원수와 악령들을 업신여기며
다함께 주님안에 기뻐하리라

지극히 인자하신 천상임금님
우리게 천상영광 허락하시면
영원한 찬미노래 불러드리며
주님을 무궁토록 기리오리다. 아멘

-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문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셨나이다.
 - 저희는 수시로 주님을 잊고 때로는 소홀히 하며 거룩한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나이다.
 - 이제 저희가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청하오니 저희 서부공소가 본당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랑과 일치로 하나 되게 하시고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 마침내 저희가 본당공동체가 되는 날 모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서부공소 및 본당 소식

◎ 공소 교우 여러분 축하합니다!!

우리의 소원이던 본당으로 가는 길의 첫걸음인 사제관 및 교육관 겸용의 건물을 구입 했습니다. 우리 기도의 응답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더욱 정성 어린 기도와 봉헌을 부탁드립니다.

주소는 516 Franklin St N 바로 성안토니다니엘 성당 주차장 건너편입니다. 3월 28일 인수할 예정입니다.

◎ 이번 꾸르실로 연례 피정에 김현태(요셉), 노재현 (아킬레오), 노동원(라자로), 장용경(루시아), 윤명희 (엘리사벳) 교우가 참가 했습니다. 많은 격려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 2월 구역모임 안내

- ▶1구역: 23일(토) 6pm 소피아 자매집
- ▶2구역: 17일(일) 7pm 장지연 자매집
- ▶3구역: 17일(일) 6:30pm 박용대 형제집
- ▶4구역: 22일(금) 7pm 이상재 형제집
- ▶5구역: 23일(토) 6pm 김현태 형제집
- ▶6구역: 23일(토) 7pm 박영진 형제집

◎ 사순 시기 동안 매주 금요일 7시 30분에 십자가의 길이 각 구역별로 한번씩 돌아가며 진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바뇌기도회 모임 일자 변경

재의 수요일 관계로 2월 5일로 변경 합니다.
▶2월 5일(수) 오후 7시 30분 이명희형제집

◎ 유아세례 안내

- ▶2월 10일 주일 미사시
- ▶문의 ; 박 재영 선교부장 (B)519-578-8690

◎ 청소년 스키캠프

오는 2월 16일 (당일)에 Gr7~대학생을 대상으로 Horseshoe Resort에서 있습니다.
▶문의/접수 : 노재현 청소년부장

◎ 매일 미사책 추가 접수

- ▶신청 ; 박 재영 선교부장 (B)519-578-8690

◎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

저희 서부공소가 창립된지 12주년이 되었습니다.. 공소가 본당이 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저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보실 것입니다. 모름지기 저희의 정성된 기도와 이루고자하는 마음가짐이 보다 중요한 때 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온전히 모아 마침기도로 '본당으로 가는 길'을 바치겠습니다.

◎ 주간 전례

- ▶2 월 5일(화) 밤 8시, 성녀아가다순교자기념
- ▶2 월 6일(수) 밤 8시, 재의 수요일
- ▶2 월 7일(목) 오후 5시, 설 위령미사
- ▶2 월 8일(금) 오후 8시, 재의 예식 후 금요일

◎ 재의 수요일

2월 6일(수) 오후 8시, 재를 받는 예식을 통하여 사순시기가 시작됩니다. 재의 수요일 날은 금식과 금욕을 하는 날입니다. 나이가 65세 이상이거나 환자들은 금식과 금욕에서 관면됩니다.

◎ 설 위령미사 안내

2월 7일은 우리 교유의 명절 설날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상님들을 기억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위령미사를 봉헌하여 주십시오.

◎ 견진성사 신청

3월 9일 본당 견진성사가 있습니다. 아직 견진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하여 주십시오.
신청 : 선교부장

◎ 퀘백 세계성체대회 및 성지순례

신청하신 분들은 참가회비를 선교부장님께 납부하여 주십시오.

◎터키-그리스 성지순례

기간 : 2008년 5월 22(목)-6월 5일(목)
순례비용 : \$3,600(추가경비없음)
신청마감 : 2008년 2월 24일

미 사 전례

해 설 김근효 차주 해설 이명희

화 답 송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로다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기뻐하고 즐거워 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클 것이다.
◎알렐루야

성 가

입 당 (37) 행복한 사람들
봉 헌 (219) 주여 몸과 맘 다 바치오니
성 체
되 장 (434) 산상교훈

	독	서
2월 3일	고영호	고기숙
2월 10일	김현태	김진선
2월 17일	김호철	김창숙

	봉	헌
2월 3일	장명길	장용경
2월 10일	고영호	고기숙
2월 17일	김현태	김진선

	복	사
2월 3일	수빈	경은
2월 10일	원영	한힘
2월 17일	경은	지현

2008년 1월 20일 헌금 내역	
주일헌금:	\$ 695.00
성전건립:	\$ 280.00
Total:	\$ 975.00

2008-05 2008. 2. 3.

연중 제 4주일미사

주일 미사	주일 낮 11시 30분
▶ 서부 공소 (주일) 오후 5시	
▶ 동부 공소 (토) 오후 7시	
평일 미사	주일 주보에 공지(화,목,토)
성모 미사	매월 첫 토요일 낮 12시
성 시 간	매월 첫 목요일 오후 8시
주일 학교	주일 낮 12시 미사 중
예비자교리	매년 6월-12월, 6개월 교육
유아 세례	매월 마지막 주(미리 신청)
견진 성사	2년에 일회, 1개월 교육
혼인 성사	결혼 6개월 전 면담
고해 성사	미사 전·후
병자 성사	병환 중과 임종 직전
주임 신부	고 원 일 안드레아